시 론 IMF 극복의 지혜⑥

새로운 노사관계

벼랑 끝에 선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대타협을 이루었다. 국제통화기금체제라는 외부적인 압력속에서 이루어진 생태적 한계를 지닌 대타협이라 그 본질적인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었지만 이번 노사정위원회의 협상과정에서는 여러가지 주목할 만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재벌 고통분담 솔선 실업 최소화해야

우선 노동계의 양대 산맥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화합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양대노총이 합심하여 노동운동의 새로운 연대의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근시안적인 조직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이념에 있어 비록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양대 노총이 합심하여 노동기본권을 지킴으로써 노동계의 협상력을 극대화시켰다. 노동계는 그들의 생존권이 달린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수용하면서 새정권의 정국운영에 있어 주도적인 파트너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연기영 〈동국대 법대교수·본지 논설위원〉

또한 대타협 속에는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고용보험과는 별도로 임금채권보장기금 등 사회보장적 내용이 들어 있다. 의료보험제도의 통합과 다른 사회보험의 개혁안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실로 획기적인 일이다.

그러나 합의문의 구속력과 함께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 이미 IMF의 한파로 인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되어 일자리를 잃어버린 실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정리해고제가 도입되어 대량실업사태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특히 기업주들이 위장술을 이용하여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을 실시함으로써 정리해고를 남발하는 경우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한국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미증유의 대량실업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선 정국을 주도하는 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와 정책수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재벌에 대한 개혁정책을 과감히 펼쳐나가고 노조의 경영참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적용,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 도입, 고용세의 신설,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허용 등이 선결 과제이다.

다음은 재벌들의 자기정화와 고통분담의 헌신적인 노력이다. 재벌들은 자기기업을 살리기 위해, 노동자들과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을 내놓는 용기가 필요하다.

노동자들도 단단히 각오를 해야 한다. 이미 작은 정부를 내세운 정부조직축소안이 통과되어 공무원 감축이 눈앞에 닥친 과제이다. 밥그릇을 빼앗긴 실직자들이 바로 우리들 곁에서 신음하고 있다. 서로서로 등불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 아픔을 함께 해야 한다. 우리 불교계에서도 실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비의 쉼터, 무료직업소개소 등을 마련하고 있다.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직자들에게는 경제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불안과 초조가 더 큰 문제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문제로서 총체적 국가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이다. 이를 극복하는 길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와 보시의 실천이다. 희망과 용기를 잃고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양식을 주어야 한다. 재물을 베푸는 것(재시)도 중요하지만 정신을 안정시키는 보시(무외시)와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 위기극복의 지혜를 주는 보시(법시)가 더욱 필요하다. 참선수행

노사정 공생하려면 자비와 보시 실천을

법을 통한 마음다스리기를 생활화하는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하자. 귀농학교를 개설한 사찰도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좀 더 조직적이고 과학적으로 기획, 실천될 수 있도록 불교계가 힘을 모으자.

불교사상에 입각하여 불교계가 발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IMF 극복사업을 정부나 기업에서 적극 후원할 필요가 있다. 노사정 대타협의 화합정신이 국가운영의 근간으로 정착되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불국정토가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어려운 때일수록 불심을 모으자.

열린마당

52계위 포살참회법

조계종 포교연구실이 자료집으로 펴낼 '대승보살 52계위 포살참회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계단위원회에서는 재가불자들이 행하기 어려운 계목이며 율장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계단위원 내부적으로 '보살 52계위'에 대해 반대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포교연구실은 3월중 자료집으로 제작, 배포해 일선 사찰의 신도포살법회 계본으로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살 52계위'를 둘러싼 포교연구실과 계단위원회, 불교학자, 신도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취지 공감하나 율장계본과 달라"

지관스님 〈日 에이지대 불교학박사과정〉

얼마 전 조계종포교원에서 신도포살의 정기적 실시를 위해 '대승보살 52계위 포살참회법'을 만들었다는 기사를 보고, 그 취지에 크게 공감하면서 대단히 기뻤다. 수행과 신앙의 과정에서 포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도 포살참회법으로서 이것이 과연 율장의 정신에 입각해서 여법하고,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대승보살 52계위'는 모든 번뇌와 욕망을 떨쳐버렸고, 출세간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즉, 보살지위에 들어간 자)만이 가능한 실천행이자 서원인 것이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는 재가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8재계)을 일러주시지 않았던가! 또한 포살의 의식에 대하여서도 사분율을 비롯한 여러 한역율장에서도 한결같이 바라제목차(계본)를 외우도록 기술되어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처럼 포살참회사가 주장자를 들어 선상을 세 번 친 후 문답을 한다거나 하는 내용이나 순서 등에 관한 조문, 문헌 등은 찾아볼 수도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승보살 52계위는 포살에 필요한 바라제목차가 아닌 것이다.

본인은 한국과 같은 대승불교권 국가의 교단에서 율장 외에 근거한 어떠한 포살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 한국불교만이 가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할 필연성이 있다면, 그 명분과 정당성이 한국만이 아닌 여러 대승불교국가의 사부대중들에게도 이해될 수 있어야 이 시대의 여법한 법이라 생각한다.

"난해하고 모호…재가실천 불가"

신성현 〈동국대 불교문화硏 연구원〉

화엄사상의 자리이타행을 강조하여 신도의 일상생활을 수행과 연계하는 '대승보살 52계위 포살참회법'은 성불을 궁극의 목표로 하는 대승불교사상에 잘 부합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불교 본래의 전통이라는 점에서 볼 때는 대승보살 52계위 포살참회에 앞서 몇가지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

포살은 본래 신자와 비구(비구니) 포살 2종이 있다. 신자의 포살은 일주일에 한번꼴로 매월 8·14·15·23·29·30일에 행하여 졌으며, 포살일에는 아침 일찍 정사(절)에 나가 비구스님들로부터 계를 받아 하루동안 이를 지키는 것이다. 8종의 계는 ①생명을 죽이지 말며 ②도둑질을 하지 말며 ③거짓말을 하지 말며 ④술을 마시지 말며 ⑤음욕을 행하지 말며 ⑥오후에 식사하지 말며 ⑦(꽃)장식이나 향수 등을 바르지 말며 ⑧높은 침상에서 자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8재계이며, 이것이 본래 불교전통이었다. 8재계라는 단어 자체도 여덟가지를 구족하는 포살(atthangikam Uposatham)이라는 번역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이를 잘 입증한다.

포살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설계(說戒), 즉 계를 설하는데 있다. 물론 이 또한 수행의 과정을 통하여 궁극의 경지에 이르는데 있겠지만 우선은 계를 통하여 각자의 죄과를 참회하고 청정하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복잡다기한 현대를 살아가는 신도들에게 대승보살 52계위는 때로는 난해하게도, 때로는 모호하게도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보살행 생활화 도움될듯

한주영 〈선재회 회원〉

불교의 목적은 보살행을 하기 위함이다. 이런 의미에서 포살은 절대 필요하다. 포살은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모습을 점검, 본래의 청정심을 되찾자는 의식이다. 최근에서야 몇몇 사찰에서 신도포살을 실시하고 있다.

포교연구실이 대승보살 52계위를 제시하고, 보살행의 생활화를 위해 포살법회에 접목하려는 의지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또 이를 자료집으로 만들어 사찰에서 활용토록 배려하는 마음씀에 고맙기 그지없다. 포살법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에 포교연구실이 제시한 보살 52계위는 기존의 '금지' 계율과 달리 보살행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교를 보는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일찍이 없었던 획기적인 시도라고 본다.

수행의 방향과 좌표 제시

이명옥 〈우리는선우 기획실장〉

조계종 포교연구실이 재가자 포살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포살참회법을 제시한 것에 대해 우선 종단차원에서 재가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이 반가웠다. 이전에는 이런 시도조차 없었다.

많은 재가불자들이 포살을 낯설어 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선우도 최근에서야 포살법회를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법회에 참석하고, 보시를 하고, 5계를 잘 지키면 좋은 불자라는 생각이 대부분일 것이다.

포교연구실이 제시한 포살참회법은 수행을 점검하고 수행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좌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다만, 계목이 너무 많아 벅차다는 생각은 숨길 수 없다.

■ 포교연구실 제정 배경

"대승보살 수행 체계적 정리"

포교연구실은 '대승보살 52계위' 자료집 머리말을 통해 '보살 52계위 포살참회법' 제정 배경과 내용, 참고자료를 밝히고 있다. 다음은 머리말 요약문.

대승보살이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마땅히 닦아야 할 수행덕목이 대승경전에 분명하게 설해져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한국불교의 종단내외의 사정으로 한번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승보살의 수행'을 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포교연구실에서는 대승보살의 진정한 수행법인 '대승보살 52계위 수행법'을 정리·요약하여 대승보살의 포살본(布薩本)을 만들었고, 연구하면서 모으고 정리한 내용들은 법사들이 강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자료집으로 엮었다.

이 자료집의 편집을 위한 기본 참고서는 다음과 같다. 〈보살영락본업경(菩薩瓔珞本業經)〉, 〈대불정수능엄경(大佛頂首 楞嚴經)〉, 〈범망경(梵網經)〉, 〈마하반야바라밀경〉 제6권 '발취품', 〈화엄경〉, 〈성유식론〉, 〈대지도론〉, 〈망월대사전〉, 〈불교학대사전〉, 〈한자범어사전〉 등이다.

지금까지의 신도교육의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지식 위주의 교리강습이 주종을 이루어 지속적인 수행을 바탕으로 하는 참다운 신행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었다. '대승보살 52계위 포살참회법'으로 포살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진정한 보살의 신행을 마음속 깊이 각인해가는 완벽한 심지법문(心地法門)의 신도교육이 되게 하며, 또한 이와 같은 신도교육의 체계로써 본·말사간에 통일되고 일원화된 신도교육의 프로젝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계단위원회 반대입장

"율장 근거없고 실천 어렵다"

'대승보살 52계위 포살참회법'과 관련, 계단위원회는 11일 대구 파계사 영산율원에서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열어 반대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이날 모임에서 계단위원들은 계단위원회에서 포교원의 종무에 대해 관여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총무원에서 자문을 구하는 형식을 취하면 공식적인 반대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따라서 현재는 공식적인 입장발표는 하지 않고 있다. 이날 모임의 분위기는 상당히 강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단위원 모임에는 총무원의 한 부장스님이 참석했다.

계단위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신도의 입장에서 계목이 어려워 실천하지 못한다. 그러면 포살할 때마다 거짓말하는 꼴이 되며 △율장에 근거가 없다는 두 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법성스님은 16일 △'보살 52계위'는 경·율·논 3장(三藏)에 의거한 것이며 △노력없이 부처가 될 수 없으므로 어렵다는 비판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특히 재가불자 참회의식이므로 계단위원의 입장에서 볼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포교연구실은 〈법회와 설법〉 3월호에 별책부록으로 '보살 52계위'를 배포할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한국불교교육대학 신입생 모집

● 본 대 학 특 징 ●

1) 직장인 가정주부들에게 불교지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종교사회교육대학임.
2) 15년간 배출된 졸업생은 사찰, 군법회, 교도소등 각분야포교, 각종단에 출가 활동중.
3) 희망에 따라 고시를 통해 조계종포교사자격을 취득함.
4)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진학을 추천함.
5) 일요일 서울, 부산 본대학 캠퍼스에서 특강과 가정학습통신교재로 교육함.
6) 별도 수강료는 없으며 1학기(6개월) 12만원 교재대만 받음.

● 모집과정과 입학자격 ●

포교사과	1년코스	고졸이상 실력자와 초발심자 조계종포교사고시 집중지도
대학과정	2년코스	고졸이상 실력자 또는 불교교양대학 졸업자
대학원과정		불교교육기관에서 2년이상 수학한자
삼장법사과	3년코스	불교교육기관에서 4년이상 수학한자

● 입 학 절 차 ●

입학원서(본대학 소정양식) 사진3매첨부(원서대 5천원신청), 주민등록등본1통, 1998년 2월 5일부터 2월말일까지 본대학 또는 부산분교에 전화, 우편으로 신청, 서류 심사후 합격자는 개별 통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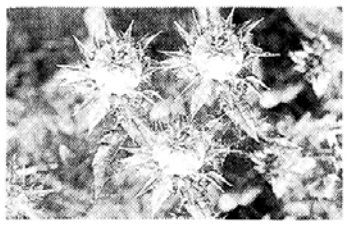
※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대학에 직접 전화로 문의 하기 바람.

한국불교교육대학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366-146
전화 02) 821-0541, 821-0542, FAX 821-0543
■ 부산분교 : 부산시 금정구 부곡1동 704 석림정사
전화 051) 581-4111, 582-4110
학장 철학박사 김공철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래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우아함과 품위를 살리는 동양의 보석

신경통, 고혈압, 당뇨, 잇몸질환 등의 난치병치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뇌내모르핀의 분비를 활성화 함으로써 노화방지는 물론 현대인의 잡다한 병(30~50대 여성의 火병, 불안, 신경질, 불면증, 피부병, 직장인·수험생건강 등)을 예방 치유합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잘 듣습니다.

* 세계 유일한 보석 옥산가 백옥

* 眞玉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한국일보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 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0.9%, 심장질환자 100% 귀울림병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3.3%,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유효과를 기록했다.
대전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실험
두통, 불면증, 불안, 손발저림 소화불량 환자를 대상으로 춘천인옥제품을 착용시켜 임상실험 결과 온반지 84%, 옥목걸이 88%의 치료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93. 2. 17)
* 상식의 테두리에 사로잡혀 있는 관념과 과학자의 관찰능력을 넘어선 힘, 신비의 힘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춘천 옥산가 백옥입니다

서울일간
「春川産 白玉성인병에 卓效」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랭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